

부활 제7주일
(예수 승천 대축일)

기도서 P. 305 C해

제1독서(사도 1, 1-11)
제2독서(에페 1, 17-23)
복음(루카 24, 46-53)

숲 정이

발행인 김관철
인쇄인 김봉희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②2935)

□ 강론



증인(證人)들

안 용 기 신부

비오는 어느 토요일에 서울역에서 두시간 동안 기차를 기다려야 할 일이 있었읍니다. 그때 문제는 어떻게 두시간을 보내느냐 하는 것이었읍니다. 이것 저것 생각이 나지만 결정을 못내리체 어디 흥미거리가 없나 하며 같은 길을 서성이고 있었읍니다. 그때 “음! 저기 무어가 있구나” 하는 곳이 보였읍니다. 대합실 앞에 열대여섯명의 청년들이 우산을 받고 둥그렇게 서서 고개를 숙이고 무엇을 보고 있는 모습이었읍니다. 접잔을 빼고 슬슬 다가가서 고개를 주욱 내밀고 청년들 틈으로 보았읍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지않아” 하며 의아한 내 귀에 무슨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읍니다. 아니 이젠 또 뭐야 하는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하는 너무나 귀에 익은 소리가 똑똑히 들렸읍니다. 아! 주님을 보고 있었구나. “그렇지, 시골 장터에서 가끔 볼 수 있는 흥미거리나 찾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보일리 없지”하며 뭉클한 마음에 젖어 있을 때 청년들은 “나는 전철” “나는 버스” 하고 작별의 손을 흔들면서 총총히 사라져 갔읍니다. 나이를 짐작해 보니 열 아홉에서 스물 두셋 정도의 청년들이었읍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며 나는 나 자신과 우리 청년들을 그들과 비교해 봅니다. 과연 우리 청년들 같으면 어떻게 하고 헤어졌을까? 나도 그렇지, 기다리는 두시간 동안 까만 우산, 까만 정복에 하얀 칼다, 그리고 한 손엔 가방, 한 손엔 목주알을 들리며 침착히 시간을 사용했다면, 공인(公認)된 살아있는 증인이기에 앞서 그 듯한 인파에 교우들이 없을리 없겠고, 나를 보는 교우의 가슴에 얼마나 든든함을 주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복음에 “당신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요. 틀림없이 우린 증인입니다. 그래서 꾸르실로 때, 성령세미나 때, 공동체 묵상회 때, 성당에서 미사때 충실히 증인노릇을 안합니까? 하지만 좀더 하시지 않으렵니까?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지 말고요.

열애중의 딸을 밖에 못나가게 막기 위해 머리를 꺾었다니 수건을 쓰고 나가더라도 웃겠지요. 모교회 신자가 200명인데 년 예산이 6,000만원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심정이 어떻습니까? 모공장에 기독교 신자들이 있는데, 주일날 예배참례를 막을 수가 없다가에, 천주교 신자들은 어떻게 했더니 말을 잘 듣는다고 해요. 정말이지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안했거던요. 언제부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우리 모두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다같이 반성합시다.

(주현동 천주교회 주임신부)



오소리가 된 사람들

왜 울어?!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의 어른들은, 고향을 버리고 적지를 떠돌며 한많은 눈물을 삼켰다. 이제 나라를 되찾았는데도, 같은 동포끼리 사는데도 피눈물의 흐름은 있었다. 정권야욕에 눈이 어두운, 양가죽을 쓰고 이빨을 감춘 늑대들이 이 나라 양심의 파수꾼들에게서 인권을 앗아가버린 것이다. 인간회복과 민주발전은 눈물을 마시고 성장하는지, 오늘도 여러 곳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다.

공해에 찌든 현대인들은 자연을 그리워 하고 있는 모양이다. 옛시대의 투구와 방패, 단봉과 돌던지가 성행하고 있다. 밝은 대낮에 시가지 한복판에서 오소리를 잡는지, 눈물과 콧물을 찢끔거리며 재채기가 한창이다. 왜 동쪽끼리 머리가 터지는 피흘림을 해야 하는가? 대학생과 경찰들이 불구대천의 아버지라도 죽인 원수지간이란 말인가? 제발 그만두자.

문제는 불신(不信)이다. 문교부장관의 하소연대로,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게 된 연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지도자들이 보여준 본보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 출마를 앞뎠다던 그이가 ‘국민이 원한다면’이라는 핑계를 내걸고 백성들을 놀렸다. 군 본연의 임무로 빠른 시일내에 돌아가겠다던 소위 5.16혁명공약은 어떻게 지켜졌던가? 어디 그뿐인가? 지도자들의 말을 거꾸로 알아들어야 손해를 안보던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속이누게 정치인가? 거짓말하다가 늑대에 물려 죽은 이슬 우화를 거울삼아라.

학생들이여, 여러분의 뜻을 우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부터 이해시켜라. 시끄럽다고 느끼는 시민이 없게 말라. 여러분의 부모들은 홍보(弘報) 비슷한 언론 아래서 살아왔음을 잊지 말라. 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영종한 사람이 벌여가는 일도 없게 하자.

숲 정이 산책



한국 천주교 주교단 시국 담화문

지난 5월 5일~9일동안 춘계 주교총회가 개최되었다. 교회내의 여러가지 중요 현안문제를 다루고, 또한 오늘의 한국사태에 대한 토론을 마친 후 현 시국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주교단은 민주헌정 확립과 정권이양을 가로막는 불신의 장막을 걷어내기 위해 서로 노력하자고 호소하며, 「정부의 공약이행·과거의 정치적 과오에 책임있는 인사들의 자숙·국민 각자의 성실한 노력·민주화 투쟁 인사들의 석방, 사면, 복권과 제엄령 해제」등을 촉구했다. 주교단은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전철되는 나라야만 경제발전과 국가안보가 공고히 다져진다고 주장했다.

오늘의 우리 시국은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고비에 서 있다, 특히 학원사태와 노사분규를 비롯한 제한 국내문제와 계속 긴박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국제정세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조속히 민주헌정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적 단합을 이루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국은 아직도 개선의 조짐이 불투명한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국민, 국민 서로를 갈라놓는 불신의 장막은 너무나 두텁다. 이에 복음정신에 따라 모든이에게 그리스도의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선포함으로써 이 겨레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고서 하는 우리 천주교 주교단은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우리는 이 시기에 국민적 단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위해 우리는 모두 애국애족하는 마음과 함께 진실하고 정직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믿음을 회복시켜야 하겠다. 특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 회복은 시급하다. 정부가 공약한 바 있는 민주헌정 확립과 정권이양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만의 하나라도 이 공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땅에 있어서 정치 불신은 모든 인간불신으로 이어지고 국민적 단합을 기할 도리가 없어지며 급기야는 여기서 초래될 정국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국가안보의 기틀마저도 흔들릴 염려가 너무나 크다.

2. 국민적 단합을 위해 우리는 모두 회개의 정신과 아울러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참으로 살아야 하겠다. 먼저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정치 경제 등, 사회 각계의 지도층은 국민대중앞에 지난날에 있어 국민을 오도하거나 혹은 부정과 불의에 타협함으로써 범한 과오를 깊이 뉘우치는 결투와 회개의 정신을 가져야 하겠다. 특히 국민적 합의에 의해 유신체제가 부정된 현 단계에서 과거의 정치적 과오에 책임의 일단이 있는 인사들은 오늘의 민주발전 추진과정에서 역사의 순리에 따라 최대한의 결투와 자숙을 보여주기 바란다. 동시에 국민대중은 장차 정의와 아울러 사랑을 앞세워 역사를 추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겠기에 반성하고 자숙하는 이들을 화해의 정신으로 포용하는 아량을 지녀야 할 것이다.

3. 우리나라 현 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있지 않고, 인간 존엄성과 그 기본권을 참으로 존중하고 국민 모두가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민주적 정치와 경제 및 문화 질서를 확립하는데 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맞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이에 정치인들은 물론이요, 우리는 모두가 금력이나 권력에 대한 일체의 욕심을 버리고 인간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아울러 애국애족하는 정신으로 오직 겨레와 나라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각자 주어진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우리는 또한 민주화작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때에, 과거 민주화 투쟁 대열에서 후독한 시련을 겪은 이들 중에서 어련이들이 아직도 완전히 석방, 사면 복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새 민주헌정의 기초를 이루어야 할 인간존중과 국민적 화합을 위해서도 이들의 석방, 사면, 복권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난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지닌 높은 질서 의식과 애국심을 위정자들은 충심으로 인정하여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언론자유를 비롯하여 되도록 속히 민주정치를 정착시키는 것만이 시국의 불안을 해소하는 첩경임을 거듭 제언하는 바이다.

5. 우리나라가 이같이 인간 존엄성을 바탕으로 삼아 새로운 민주헌정체제를 확립하므로, 이제 그 누구도 가난하고 약하기 때문에 소외되는 이가 없을 만큼 정의롭고 밝은 사회가 될 때에 이 나라는 진정한 온 국민이 일체감을 느끼고 아끼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우리의 경제도 더욱 발전하고 국가 안보도 참으로 공고히 다져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겨레의 염원인 남북의 평화적 통일 역시 이 정신과 이 힘 위에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중대한 시련인 동시에 희망의 제기인 현 시국에 임해 국민 모두가 양심, 결투, 성실을 다하고 질서를 지킴으로 민족의 운명을 영광된 역사의 단계로 이끌어 나가자고 호소하는 바이다.

1980. 5. 8

한국 천주교 주교단

三星物産 전주 특약점



McGREGOR Weekend

맥그리거 위크엔드

성인·아동용 의류

전주시 중앙동 3가 96-2 삼화약국 옆

전화 ④ 4451 유율리안나

□ 교우여러분의 가정에 소량도 신속 배달하겠습니다

한미주유소

전화 ④ 5669번

주최 남수(아빨로니오)

전주시 효자동 1가 283번지

□ 5월은 가정의 달 □



당신과 함께 살아갑니다

정 순 자

6년전만 해도 나는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주부였습니다. 토건업을 하시던 아빠는 착하고 부지런한 분이로서 소문이 날 만큼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화려한 살림은 못되어도 걱정없이 여유있는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세상이 다 내 것 같았고 그야말로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도 한 순간의 것이었습니다. 아빠의 외도(外道)로 말미암아 공사는 엉망이 되었고 가정은 파탄에 이른 것입니다. 우린 사업에 실패하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빚을 청산하고 나니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곤 집 한 채 뿐이었습니다.

참으로 원통하고 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타락하여 변해버린 아빠가 밧다기보다는 하느님이 원망스러워했습니다. 5남매나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갈 일이 막연하기만 했습니다. 자살을 하겠다고 결심한 적도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생각다 못해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김해까지 가서, 한의원을 하는 어느 동정녀택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택에서 2주일 동안 머물면서 생각한 끝에 다섯 아이들을 위해서는 나 혼자라도 일처리를 구해서 살아야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어려움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리다 보니 자주 아쉬운 소리를 해야 했습니다. 세삼 느낀 사실이었지만 내가 아쉬워 할 때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에서 그들의 사람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만져보고 돈다해도 막무가내였고 당장 끼니를 이어야 하는 걱정에 발을 동동 굴러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다. 단돈 10원때문에 아이들을 울릴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하느님께 의탁해서 이 역경을 헤쳐나가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자 나도 모르게 지혜와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사람들이 매정하게 우리를 외면했을 때에도 "이것은 죄에 대한 보속이다"라고 생각하니 야속하다는 느낌이 덜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프했습니다. 내가 방황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알고 있거나 한 것처럼 주위 사람들이 찾아주고 돈도 빌려주는가 하면, 아이들은 학교에서 1등을 했다고 신나게 달려오곤 했습니다. 형제나 친척, 친구들도 외면하는 우리를 찾아주는 이웃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통이 많은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도 많습니다"(2고린 1,5)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가 의롭지가 되어도 두렵거나 외롭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막내 베드르가 태어나 재물을 부리며 웃음을 가져다주고 아빠는 중동에 가서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주님이 자취를 감추시고 겸손해지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나는 체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가장 보람있고 값진 삶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노송동 천주교회, 경향잡지 3월호에서 발췌)

□ 여성 여러분에게

웃을 선사합니다

송옥의상실

최춘자(로스리아)

(이시계절)

전화 ② 6219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방석, 보로

문화양행

오종원(아오스딩)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②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건축용페인트, 기와용락카, 카-슈철, 호마이카, 락카, 접착제, 청단안료, 왁스, 금분, 은분, 가구재료도장공사 청부(상담)

현대페인트사

청자표 현대페인트(주)

전주직매점

주 오영원(바오로)·김영환(아오스딩)

전동 2가69(성모병원앞) ②2377번

□ 운동기구, 추리닝, 유니폼 일절

※ 교우 자매님께 열가 제공

경주체육사

(인후동 전여고 삼거리)

주 김수산나(춘자)

전화 4-0681

*교우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시보당 금방

(금·은·보석·각국 시계)

주 이창수(바오로)

전주 남문 옆

전화 ② 8188 (자 ②0369)

도자기, 합죽선, 화문석, 필방, 특산물 일절

※ 교우님들 자주 들러 주세요.

백제공예

주 이현수(실비아)

전화 2-3908

(전주 우체국 앞, 풍남백화점 내)

□ 정화 미용학원 학생모집 □

윤경미장원

(신부화장 및 드레스)

이리시 창인동 구역전 앞

최윤경(유리안나)

전화: ② 8653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공지사항

1. 김재덕 주교님 회갑...5월 28일, 각 본당과 기관에서는 주교님과 교구를 위하여 본당별로 특별 회갑 기념미사가 있습니다. 교우분들께서는 이날 미사에 많이 참석하시어 주교님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2. 전국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총회...22일(목)~23일(금), 대전 유성에서
 3. 군옥지구 아치에스 행사...25일 오후 2시
 4. 여자 켄 모임...5월 18일 오후 2시, 중앙성당 강당에서
- 이태주 신부 아버지 1주기...19일 오후 9시-미사, 여수 자택에서 (☎ 8714) 많은 기구 부탁드립니다.

(중앙)

전화 ☎3651 주임 신부 문정현
☎3874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김병구

1. 성모회 : 공식미사 후 강당
 2. 주교님 회갑미사 : 30일-10시 30분 전신자가 참례하도록 구역장, 반장님 수고해 주세요
 3. 주일학교 소풍 : 18일(일) 8시까지 성당 집합
 4. 어머니 성가대 총회 : 22일(목) 오전 10시
 5. 합동 혼배미사 : 6월 8일 저녁미사 후 혼배하실분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6. 견진교리 : 19일부터 저녁미사 후 18일까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7. 병자 방문 : 20일 오전 10시 수녀님에게 알려주세요
 8. 술집이 신축기금 수입금 속히 납부합시다
- 지난주 봉헌금 : 322,585원

(노충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김나영
보좌 신부 박정준
사도 회장 박원열

1. 인후아파트구역 특전미사 : 매주(토) 밤 8시에 삼흥목욕탕 2층(전화 ☎3733)에서 이 지역 신자들을 위한 특전미사를 봉헌합니다. 빠짐없는 참여 바람의 피정의 집에서, 이번주에는 수요일까지 계속합니다
 2. 성서 강의 : 매주(월·화) 저녁 8시~9시까지 본당의 피정의 집에서, 이번주에는 수요일까지 계속합니다
 3. 레지오 마리에 옥의행사 : 다음주 오전 10시 반에 인후동 안골 현직에서 미사 있습니다. 전단원 및 예비 협조단원의 참석을 바랍니다
 4. 금주의 성경읽기 : 구약의 열왕기 상편과 마카베오 상편
 5. 교무금 납부의 날 : 다음주는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84,327원

(덕진)

전화 ☎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양정열
사도 회장 양정열

1. 교우님들 기도속에 무사히 피정과 총회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협조로 본당발전과 주님의 일에 노력 하겠읍니다
 2. 성모의 밤 행사 : 31일 지참물-묵주, 기도서, 성가집 단채별로 화분이나 꽃다발 준비 바람
 3. 봉사활동 안내 : 공소 모내기-6월 1일 뜻있는 청년 학생들 참여 바랍니다
 4. 진복회 월례회의 : 25일 꼭 참여하세요
 5. 18일 미사 : 오전 5시30분, 10시(야외미사), 저녁8시 야외미사 관계로 3시 학생미사는 없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 272,215원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범영배
사도 회장 조성호

1. 주교님 회갑 : 나누어 드린 봉투에 영적, 물질 예물을 정성껏 적어도 25일까지 내주세요
2.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3. LM 옥의행사 : 25일(주일), 장소-교산 천호 회비-1,000원, 도시락 지참 단원과 희망자는 신청 바람
4. 성모의 밤 : 31일(토) 저녁미사 후(양초, 묵주 지참) 각 신실단체에서 화분, 기도문 준비
5. 예비자 교리 : 매주일 공식미사 후-히레테사씨 지도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후-범신부님 지도
6. 주일학교 : 매주일 오후 2시, 어린이미사 오후 3시
7. 학생회 월례회 : 오늘 학생미사(9시) 후

8. 봉헌금 : 미수없도록 완납바랍니다
 9. 결혼 : 18일 12시-이기평군, 이양숙(제노베파)양 21일 12시-오현수군, 윤혜련(벨라렛다)양
- 지난주 봉헌금 : 254,490원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철수

1. 오늘 승천 야외미사 : 11시 치명산
 2. 미사시간변경 : 일, 월, 목-새벽 5시 30분
 3. 할머니회 : 어머니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성모의 밤 행사 : 27일 8시 (묵주, 초, 꽃다발, 소원봉투 준비)
 5. 감사 : 제대꽃 강제순 감사합니다
 6. 다음주 전례담당 : 독서-강기호, 박봉환 신자들의 기도-박형식, 김태수
- 지난주 봉헌금 : 152,864원 교무금 : 42,625원

(숲정이)

전화 ☎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성모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성신강림 대축일 : 9시 예비신자·유아세례식
 3. 주교님 회갑기념 예물 : 5월 28일 봉투를 25일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4. 마무리 되어가는 성전신축금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5. 신축기금 내주신 분 : 일행님(1만원), 김순일(2만원) 오숙구(10만원), 오창석·오마리아(각 5천원) 복자성당 신입액중 강대안 외 447,500원, 중앙성당 신입액중 237,500원, 노중동 신입액중 3만원, 서울지마리아나 2만원, 중앙성당 신입액중 하정호 2만원
- 지난주 봉헌금 : 214,670원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김병열
보좌 신부 김기수
사도 회장 유석출

1. 장우회 : 야유회 일시-5월 19일(월), 덕진 동물원 집합-오전 10시 성당으로 각자 도시락 지참
 2. 주교님 회갑기념 예물 접수바랍니다
 3. 예비자 교리안내 : 중·고생-토요일 오후 3시30분 젊은이-수·목요일 8시, 일반-일요일 오전 11시
 4. 미라회 가입 희망자는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5. 미사시간 변경 : 아침미사-일요일 5시 30분
 6. 견진 : 6월 1일-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356,385원

(파티마)

전화 ☎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채수현

1. 레지오 마리에 피정 : 5월 31일 오후 1시-6시 레지오 단원과 일반신자도 같이 피정에 참석 바람
 2. 본당 주보 철폐 : 5월 13일, 사제 피정 관계로 5월 31일 성모의 밤에 함께 지냅니다
 3. 성신강림 주일 : 25일, 레지오 옥의행사 결 야외미사 있습니다(본당에서는 저녁 8시미사만 있음,) 도시락 지참
 4. 주교님 회갑에 영적·물질예물 정성껏 바칩시다 25일까지 본당 사무실에 제출바랍니다
 5. 고등학생 쉼 : 18일 소풍 있습니다
 6. 본당 신자들은 게시문을 살펴봅시다
 7. 성모 현양대회전 9일기도 : 23일~31일, 전신자 매일 미사참여와 토사리오 기도를 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 89,300원 어린이헌금 : 1,595원 교무금 : 33,500원